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 맛벌이 믿고 과도한 대출엔 낭패

### 출산 등 소득원 감소엔 재무건전도 급속 악화 부채상환 원리금, 주 소득 기준 30% 안넘어야

실제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 2006년부터 지속돼온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임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가계 부채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산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소득원이 감소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의 한계로 재무건전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원리로 줄어든다면 월 가용소득이 174만원으로 줄게 돼 재정적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고정지출이다. 즉, 생활비와 같은 변동지출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정지출은 반드시 지출돼야 하므로 가정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

민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을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포함해 1천만원 한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월 50만원의 담보대출 이자를 납입했다면 과표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세금 환급액이 발생한다.

## 한진·현대중 출총제 재지정

### 적용기준 상향, 11개 집단 264개사로 줄어

#### 동부·현대 등 5개 기업집단 제외

한진과 현대중공업이 올해 출총제 제한 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고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텍주 등 5개 집단은 제외됐다.

지난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올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지정됐고, 개정 공정거래법상 지정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텍주 등 5개 집단이 빠졌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면서도 각종 졸업제도를 이용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KT, 한국철도공사(이상 과외도·승수 기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과외도·승수, 단순출자구조기준 동시 충족) 등 9개 집단이었다.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399개 계열사 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회생절차 진행,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사유로 135개사가 적용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수는 264개로 지난해보다 79개 감소했다.

출총제 적용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출총제 적용대상은 지난해 14개 집단 343개사에서 올해 11개 집단 264개사로 줄었으며, 오는 7월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되면 7개 집단 27개사만 출총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11개 출총제 기업집단 264개사와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에 금지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62개 기업집단 1천196개사를 지정, 발표했다.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로 지난해 14개보다 3개 줄었다.



지엠대우 복지시설 차량 기증

사회복지법인인 지엠대우한미재단의 주석범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광주 엠마우스복지관(관장·천노엘 신부)을 방문,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차량(센터라) 1대를 기증했다. 지엠대우 임직원들이 지난 2005년 설립한 이 재단은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지엠대우한미재단의 주석범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광주 엠마우스복지관(관장·천노엘 신부)을 방문,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차량(센터라) 1대를 기증했다. 지엠대우 임직원들이 지난 2005년 설립한 이 재단은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 작년 상품수출 3,260억달러

### 한국 세계 11위... 전년보다 1계단 상승

WTO '국제무역 통계' 발표 우리나라의 지난 해 상품 수출액(달러화 기준·명목 베이스)이 전년에 비해 15% 늘어난 3천260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11위 상품 수출국의 위치에 올랐다. 이는 2005년도에 상품 수출액 2천847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한 데서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지난 해 상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천99억 달러로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13위를 차지했다.

12월 세계무역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간 교역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해 상품수출에서 6위, 상품수입에서 7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에서는 510억 달러로 16위, 서비스 수입에서는 690억 달러로 13위였다.

2006년 세계의 상품 수출총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12조620억 달러였으며, 상품 수입총액은 14% 증가한 12조380억 달러였다. 또한 세계의 서비스 수출총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7천1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 수입총액은 10% 늘어난 2조6천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실질 베이스로는 지난 해 세계 상품 수출총액은 8% 증가해 200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WTO는 보고서에서 2007년도 전망과 관련,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약 3%에 이르고 실질 베이스 기준으로 세계 상품 수출총액은 작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약 6%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전경련 관료체제 벗어나

### 상근부회장 민간인으로 교체키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 부회장을 교체키로 함에 따라 세계 대표단체인 이 기구가 완전 민간인 체제로 복귀할 것인 지 주목된다.

전경련은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조건호 상근 부회장을 퇴임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새 부회장을 물색키로 했다. 또 하동만 전무와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퇴임시키고 이소철 상무와 김종석 흥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전무와 환경연 원장에 임명했다.

전임 조 부회장과 하 전무는 각각 과학기술부 차관, 특허청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이들이 국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수뇌부에 포진해있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관료 출신이 전경련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은 대정부 로비나 민간 협력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 시책과 세계 임장이 마찰을 빚을 경우 민간업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데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이 전경련 부회장을 맡은 것은 1989~1993년 한국은행총재와 동력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최창락 이후 조 부회장이 처음이며 부회장, 전무가 모두 관료출신으로 구성된 것은 조 부회장-하 전무 체제가 유일했다.

## 콜금리 동결... 4.5% 현수준 유지

### 한은 총재 "향후 국내 경기 나쁘지 않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향후 국내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전월과 동일한 4.5%로 동결시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경기만 본다면 작년 4·4분기와 올해 1분기가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경기)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국이 긴축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불안이 더 크게 발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외부 여건을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늘 있는 정도의 위험 요소"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도 한은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금융업간의 공정한 경쟁 측면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한 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작업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자체 "부채지주 농지 팔아라" 압박

### 전남도 4월말 통지... 매물 대거출회만 강강하락 불가피

농림부와 전국의 일선 지자체가 부채지주의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잇따라 통지, 비상이 걸렸다. 또 이는 향후 농지가 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등 유휴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농림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부는 농지 투기단속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당초 이용목적에 위반한 농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지주들에게 일제히 통지하고 있다. 또 이용목적에 위반한 투기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여 강제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아야 하고 팔기 싫다면 최소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1년 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할 수 있고 처분 명령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한편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가 향후 대거 매매시장에 나올 경우 농지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자지역 등 규제도 가둬 이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강제처분 매물까지 나오면 농지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부채지주가 자경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단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에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국내 제조업 선순환 한계점"

### 이구택 포스코회장... 글로벌화 등 환경요인 탓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한계점에 이르러 악순환 사이클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포스코 임원과 외주파트너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특강에서 "장기적으로 초일류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의 선순환이란 경쟁력이 있어 물건이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면 또다시 경쟁력이 더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은 선순환 사이클이 거의 한계점에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은 글로벌화 등 여러 환경요인 때문에 악순환에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선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 은행대출, 中企로 몰렸다

### 주택대출 규제로 1분기 14조원 집중

올해 1·4분기 은행들의 자금대출 가운데 85%가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금유동이 제한된 은행들이 오로지 중소기업 대출에만 매달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증가액 합

계는 16조7천171억원으로 이 가운데 14조2천667억원이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했다. 전체 대출증가액 가운데 85.3%가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한 것이다. 대기업 대출증가액은 462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은행 대출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에 겨우 1조1천904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삼성생명 보장자산 '현장투어'

### 호남지역사업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삼성생명이 보장자산을 늘리기 위해 현장속으로 파고 들었다. 삼성생명 호남지역사업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광주지역을 돌며 고객들의 보장자산을 노트북 PC를 통해 확인해주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자산 확인하기 현장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광주 풍암지구 근린공원에서 임직원과 재무설계사 40여명이 참가해 고객들에게 개별 맞춤식 보장자산 서비스를 제공했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전국 76개의 삼성생명 지점을 중심으로



한달간 주요 거점지역에서 열리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9일 목포와 10일 여수에서 실시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약취제거 '비오티스 탈취제' 출시

비오티스(Biothys) 코리아는 최근 960여 종류의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주 원료로 만든 약취제거제 '비오티스 탈취제'를 출시했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 제품은 약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향으로 약취를 은폐시키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약취분자를 중화 또는 파괴하고,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약취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순 식물성원료를 사용, 국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건물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적용범위는 산업용(석유화학공장, 식품가공·사료·가구공장,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돈사·축사·계사 등), 준산업용(호텔·모텔·노인병원 등), 가정용 등 다양하다. 문의 (062)531-3377.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